

An Alternative Approach to Early Childhood Faith Formation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Limitations of the 『Shalom, Catholic Preschool Catechism Guidebook』 and the Potential of the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Sunghwa Shin¹, Mankeun Yoon^{2*}

^{1,2}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halom: Catholic Catechism Guidebook for Young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Directory for Catechesis*, an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CGS) as an alternative model for early childhood faith education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Content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the structure and teaching methods of the *Shalom* guidebook based on the criteria outlined in the *Directory for Catechesis*, identifying its limitations. Subsequently, the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CGS), which is rooted in Maria Montessori's philosophy of religious education, was analyzed using the same criteria to assess its suitability for early childhood catechesis in the Korean Catholic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future directions for early childhood faith education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highlight the need for a shift in how we understand and approach young children in catechesis, emphasizing that such a change is essential to fulfilling the evangelizing mission of early childhood religious education.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a catechetical approach that integrates elements of being *Christ-centered*, *mystagogical*, and *experiential*.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for parish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amilies to collaborate organically, not only by developing systematic teaching strategies, environments, and catechetical materials, but also by fostering adults who can accompany children in faith as spiritual companions.

[Keywords] Early Childhood Catechesis,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Kerygmatic Catechesis, Mystagogical Catechesis, Experiential Catechesis

* **Corresponding author** Mankeun Yoon (Professor, Department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yunmose@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새 『교리교육지침』에 따른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의 한계와 착한목자 교리교육(CGS)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분석

신승화¹, 윤만근^{2*}

¹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생, ²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리교육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울대교구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 착한 목자 교리교육(CGS)을 소개하여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교리교육지침』의 기준에 따라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의 구성과 교수법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대안적 모델로 제시한 마리아 몬테소리의 종교교육 철학에 기반한 착한 목자 교리교육(CGS)을 『교리교육지침』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며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그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의 미래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교리교육의 복음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유아를 이해하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더불어 ‘그리스도 중심’, ‘신비교육적’, ‘체험 중심’의 요소가 통합된 교리교육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당, 교육기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인 교수 전략과 환경 및 교구 개발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신앙 동반자로서 성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유아 교리교육, 착한목자교리교육, 복음선포적 교리교육, 신비교육, 체험중심 교리교육

I. 서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Mk 16:15)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동반하는 복음화 사명을 본질로 간직해 왔다(PCPNE, 2020: nn. 48, 55).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으로 제시되는 교리교육은 초보적인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에 대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Pope John Paul II, 1986: n. 19). 이는 교리교육의 대상이 성인이나 청소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신앙 여정의 출발점에 있는 유아 역시 복음화 사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Mt 19:14)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아 또한 하느님의 계시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며, 교회가 유아를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하는 신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기를 ‘첫 복음화’의 시기로 명시하며, 유아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는 신앙적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교리교육지침』(PCPNE, 2020: nn. 236 - 239)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보편교회는 새로운 『교리교육지침』을 통해 유아 교리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아 교리교육은 대상자의 이해, 교리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교수법이라는 교리교육의 핵심 원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우선, 『교리교육지침』은 교리교육의 대상자인 유아에 대해 지성과 감성, 종교성을 지닌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이해하며, 유아기를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 체험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로 강조한다(PCPNE, 2020: nn. 2, 33-34). 유아는 종교성과 감수성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존재이기에, 신앙 공동체와 성인의 동반은 유아 신앙 형성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PCPNE, 2020: n. 239). 그래서 『교리교육지침』은 유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리교육이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강조한다. 이는 복음선포적 교리교육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다룰 것을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PCPNE, 2020: nn. 2, 74; Pope Benedict XVI, 2010: n. 74). 그러나 『교리교육지침』은 교리교육이 단지 ‘내용 전달’에 머물지 않고, 삶 안에서 실질적인 신앙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전례가 지닌 상징과 표징을 활용하여 하느님 신비에 접근하고, 대상자가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 드러나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 방식을 요구한다(PCPNE, 2020: n. 96). 이는 학습자의 구체적 체험을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고 내면화하기 위해, 일상적 경험이 빛 안에서 해석되며 신앙적 기억(Anamnesis)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교육의 강조로 이어진다(PCPNE, 2020: nn. 197, 200). 이 같은 교리교육의 핵심 원리는 교리교육의 목적과 방향 설정에 요구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방향성이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기 신앙교육 현장에서 얼마

나 구현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물음이 제기된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19~2023)에 따르면 유아 신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아 세례는 전체 세례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안정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CBCK, 2023: 4, 25-26).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 이하 유아를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통계 자료에서조차 언급되지 않는 현실은, 교회가 공식적인 신앙교육 체계 안에서 이 연령대를 위한 신앙교육 과정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Korea Catholic Culture Research Institute, 2021: 5). 게다가 유아 신앙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회가 여전히 관련 교재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유아 신앙교육이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가리킨다(Shin, 2020: 24). 이는 유아 신앙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교리교재가 유아 신앙교육의 방향이나 목적을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리교재의 점검은 유아기 신앙교육의 현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우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교리교재는 신앙의 토착화를 반영하는 결과물이자, 지역 교회의 교리교육 상황과 그 구체화 정도, 교육의 방향과 지침, 사용되는 도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PCPNE, 2020: nn. 404, 413).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유아기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리교재는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며, 유아 신앙교육의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천주교회에서 활용하는 유아 신앙교육의 교리교재에 대한 점검은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분석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신앙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¹⁾ 서울대교구는 유아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본당·교육기관·가정을 연계한 교육 실천과 교재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표 사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Shin, 2020: 27-29). 특히 이 교재는 유아 교육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여러 교구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신앙교육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재는 대상자인 유아와 해당 시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고, 교리 구성과 진행 방식이 성인 중심의 시각을 지녀 유아 신앙교육 교재로써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전례 참여를 이끄는 방안의 부재나 단순한 활동 중심적 접근은 신앙교육의 본질과 방법 간의 상호 관계성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교리교육지침』의 방향(PCPNE, 2020: n. 149)과 대치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가 지닌 신학적 정당성이나

1) 서울대교구는 2001년에 유아부를 설치하였으며,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1~3권)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간되었다.

교육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에 대한 명확한 분석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첫째,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교리교육의 핵심 원리 즉, 대상자의 이해, 교리교육 내용, 교육방식, 교수법을 분석의 이론적 기틀로 설정하고, 서울대교구에서 출판한 유아 교리 교재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 유아 신앙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착한 목자 교리교육(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CGS)을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교리교육의 핵심 원리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CGS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종교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하며, 감각과 상징, 말씀과 전례 중심의 접근을 통해 복음을 새롭게 체험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특히, 유아 교육 분야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은 몬테소리 교육철학에 기반한 CGS는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서 활용될 정도로 주목받는 교리교육 방법이다(Lee, 2014: 13; CGS, 2025). 이러한 점에서 CGS는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교리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이론적 기틀에 따라 살펴본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과 CGS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신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에 대한 분석적 접근

본 장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유아 신앙교육을 위해 자체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교구가 현장 활용을 위해 출판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 - 대상자 이해, 복음선포 중심 내용, 신비교육적 접근, 체험 중심 교수법 - 의 부합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교재의 특징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성인 중심적 시각에 기초한 대상자 이해의 한계

『교리교육지침』은 유아를 수동적이고 미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전한 신학적 주체로 제시한다(PCPNE, 2020: nn. 23, 236, 239). 이러한 관점은 유아를 단순한 교리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느님의 계시에 직접 응답하며 신앙 여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신학적 기초 위에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교구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 역시 유아를 전인적 존재로 간주하며, 신앙 여정 안에서 유아의 자

울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vol. 1: 4-9). 특히, 교재는 유아가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성적 존재로 접근한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이끌어내는 신앙교육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며, 유아의 발달 상황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교리교육의 실천에 대한 제안으로 이어진다(vol. 1: 6).

그러나 이 교재의 실제 교수 단계에서는 유아 중심의 교리보다는 성인 중심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주제는 사전에 수립된 교육 지도 계획에 따라 성인의 주도로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제-성경 말씀-체험 활동’은 연역적 접근(deductive approach)을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교재 전반에 나타나는 ‘질문과 대답’의 구조(vol. 1: 23, 37, 43, 55, 63)나 교리 내용 및 성경 말씀 전달 방식은 성인 중심적인 교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교재가 활동 중심의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지식 전달의 대상으로 보는 성인 중심의 전통적 교리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명 중심 수업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구성은 유아를 고려한 교리 교재라고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리교육지침』은 교육학 및 심리학의 성과를 수용하여 발달심리학적 기초에 따라 교리교육의 대상을 연령별로 구분하고, 각 연령에 적합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전의 지침서들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유아기의 ‘직관적 수용 능력’을 강조한다(Jung, 2023: 214). 유아는 본성적으로 지닌 ‘종교적 감수성과 직관력’을 통해 하느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존재로 이해된다(PCPNE, 2020: n. 236). 이는 교회가 유아의 종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앙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에서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vol. 1: 9-10). 즉, ‘종교적 자극, 성인의 모범 필요, 발달에 적합한 교육, 도덕적 규칙과 행동 습득, 성 역할에 대한 신념과 행동 증가, 동성 또래 친구에 대한 선호, 언어적 공격성 증가, 진실과 거짓의 구별, 상호작용적 놀이의 증가, 자기 의식적 정서의 빈번한 경험, 정서적 자기 조절의 발달’ 등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달 심리학적 요소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vol. 1: 10). 그러나 『교리교육지침』이 강조한 유아기의 ‘직관적 수용 능력’이나 ‘신비 경험의 가능성’은 교재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유아의 신비적 체험과 상징적 이해를 촉진하는 심화된 활동이 교재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교재가 개정된 지침서의 발표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새롭게 발표된 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재의 기획 의도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교재 설계의 원리를 교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일은 유아 신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관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가톨릭적 인간학의 관점을 기반으로 유아를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며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구현에 있어서는 성인 중심의 접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의 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과 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적 요소는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교회가 유아를 여전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유아를 ‘신학적 주체’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데 아직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복음선포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구성

교리교육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이끌고, 궁극적으로 인격적 만남을 지향하는 복음선포(Kerygma)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PCPNE, 2020: n. 78). 이는 교리교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인간 구원 역사와 말씀, 행위,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첫 선포’의 의미를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PCPNE, 2020: nn. 57-58). 또한 교리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적 삶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리교육은 대상자와 그들의 관점을 경청하며 쇄신되어야 한다(Sala, & Lee, 2022: 265).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도 유아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례주년을 중심으로 대림·성탄·사순·부활·연중 시기에 맞추어 성경 본문을 포함하여 내용을 제시한다(vol. 1: 9). 이는 복음을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로 구분하여 유아기 복음 선포의 핵심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달하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하는 복음선포적 방향성과 그리스도 중심 방향성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선포적 교리교육의 방향성은 이와 같은 형식적 구성만으로는 제대로 구현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재에 수록된 본문이 유아의 직관적 감수성과 상징이해 능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다. 실제로 교재는 성경 본문을 선택할 때 유아 연령에 대한 적합성과 교육적 유익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vol. 1: 9). 이는 교재가 성인 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되었음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 중심적 시각은 교재가 복음선포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주제를 다루거나 그 실천적 방식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로 사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방식은 유아의 삶과 신앙이 통합되도록 도와주는 동반적 구조로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기 신앙 교재로서의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전례주년에 따라 예수님의 삶을 다루려는 교재의 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인성교육이나 과학 활동 등 비

신앙적 주제를 병행하려는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활과 관련해서는 모세관 현상을 설명하며 꽃을 물에 띄우는 활동(vol. 1: 24), 소리의 공기 진동을 설명하며 풍선 전화기를 만드는 활동(vol. 1: 25), 물 분자 응집력을 설명하며 재활용 CD를 만드는 활동(vol. 1: 33)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도와 관련한 주제로는 불과 산소의 관계를 설명하는 활동(vol. 1: 52), 성가정과 관련한 주제는 풍선의 성질을 다루는 내용(vol. 3: 37), 예수님 공생활과 관련해서는 ‘과학 활동: 중풍 병자가 일어났어요’(vol. 3: 54) 등이 제시된다. 또한 위령 성월 주제와 관련해서도 성경에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의 비유를 통해 죽음의 신앙적 의미를 심화하는 방식보다는(Lee, 2014: 299), 일반적인 죽음 개념과 차례상 문화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vol. 1: 77). 이는 사순 시기나 성모님 관련 주제를 다룰 때도 전례적 의미보다는 활동 중심(vol. 3: 15, 19)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활동 중심의 접근은 교리교육이 단순한 흥미 유발에 집중함으로써 복음 메시지를 내면화하거나 신앙적 체험을 이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리교육지침』은 교리교육의 방법이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교회의 원천들을 통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내용과 방법 사이의 상응성을 고려하여 하느님과 인간 모두에게 충실한 방식임을 강조한다(PCPNE, 2020: nn. 194-195).

이러한 점에서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의 구성은 비록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리교재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교리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침(PCPNE, 2020: n. 75)의 방향성과 어긋날 뿐 아니라, ‘교리교육 또는 종교교육’을 보조하는 교리교재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교리교재는 유아의 감각적·직관적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교리교육의 내용이 복음 메시지와 삶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신비교육적 접근보다는 설명 중심의 전례 교육

『교리교육지침』은 하느님의 계시가 전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전례의 표징과 상징을 교육하여 신자들이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도록 안내할 것을 강조한다(PCPNE, 2020: nn. 74, 76, 194). 즉, 전례는 “교리교육을 위한 가장 훌륭한 자리”(Catholic Church, 2008: n. 1074)로 이해되며, 신비교육적 접근은 유아가 지닌 ‘감각적 인식 능력’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 유아 교리교육에 효과적인 실천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Kim, 2014: 23). 이러한 점에서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사순, 부활, 성모성월, 예수성심성월, 대림, 성탄, 세례 등 전례 시기와 관련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며, 전례주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교재는 미사, 세례성사, 주님의 기도, 전례 용품 등 주요 전

례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유아가 전례를 신앙 체험의 원천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전례를 통해 유아를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로 인도하려는 구체적인 지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하는 신비교육적 방향성과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전례주년을 중심으로 전례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례성사(vol. 1: 95 - 105)와 미사(vol. 2: 97 - 115) 단원에서는 주로 설명 중심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신비교육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세례성사와 미사와 관련된 성물, 전례색, 전례복, 전례적 행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개(vol. 2: 69-78)는 주로 교재에 수록된 그림이나 사진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성인의 설명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가 전례에 직접 참여하여 그 안에서 신앙적 의미를 찾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례주년 중심의 접근은 교리교재가 본당 공동체보다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유아 교리교재가 대부분의 유아들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사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유아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의 환경에서 전례적 상징에 대한 접근을 제안하는 『교리교육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PCPNE, 2020: nn. 95 - 96). 그러므로 유아 교리교재는 전례주년 외에도 성사, 전례 상징, 신앙 공간, 기도 행위 등을 포함하여 유아가 이를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 교리교재는 신앙을 일상적 삶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그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4. 내면화보다는 흥미 유발에 치중된 체험 중심 교수법

신앙과 삶의 통합을 강조하는 체험 중심의 교리교육은 인간의 경험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참된 신앙 체험의 기억(Anamnesis)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PCPNE, 2020: nn. 197, 200). 이는 교리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신학적 바탕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삶의 실천으로까지 이끄는 신앙 체험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Jung, 2003: 146; Alberich, Choi, Baek, & Shin trans, 2018: 448; Chang, 2010: 117). 이러한 체험 중심 교리교육의 원리는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교재는 다양한 놀이 경험과 활동 경험을 통해 종교적 자극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신앙적 체험의 가치를 의미 있게 다룬다. 실제로 이 교재는 유아

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성경, 명화 감상, 그림, 퍼즐, 암호 풀이, 손 유희, 예화 등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춘 60여 가지의 활동을 제공하여 주제에 대해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vol. 1: 6; vol. 2: 7). 이러한 놀이 활동은 유아의 흥미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며, 언어 중심의 교수법에 비해 높은 교육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Kang, 1997: 37).

그러나 교리교육 지침서가 제시하는 신앙 체험의 내면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구성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교재의 활동들이 신앙의 내면화를 이끄는 ‘특수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반 교육과정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성격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Kim, 2022: 144-146). 이러한 점은 활동이 단순한 흥미 도구로 전락하거나 신앙적 체험을 발전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위험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활동 과정에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활동의 신앙적 의미를 도출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도록 이끌며, 신앙적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 요구된다(Lee, 2010: 92-93). 예를 들어, 신앙적 의미를 나누는 담화, 교육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성찰, 침묵 시간, 신앙적 실천 활동 등이 필수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 교리교재는 하느님의 현존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고(PCPNE, 2020: n. 236), 유아가 활동 속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신앙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III. 착한 목자 교리교육(CGS)

착한 목자 교리교육(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CGS)은 마리아 몬테소리가 제안한 종교교육에 기반하여 유아의 신앙 형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리교육 접근 방식이다. CGS는 몬테소리 종교교육 이론에 성서학자 소피아 까발레티(Sofia Cavalletti)와 몬테소리 교육자 잔나 고비(Gianna Gobbi)의 실천 경험이 결합되어 발전하였으며, 유아의 종교적 감수성을 존중하고 성경과 전례 중심의 체험을 통해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교리교육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하는 네 가지 기준, 즉 ‘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중심 교리교육’, ‘신비교육적 교리교육’, ‘체험 중심 교리교육’에 따라 CGS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유아 신앙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

유아 교리교육에서 대상자인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은 교육의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PCPNE, 2020: mn. 225, 237). 몬테소리 종교교육과 CGS 역시 유아

이해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교리교육의 원리와 실천 방향을 정립하였다. CGS에서 나타나는 유아 이해는 유아를 ‘신학적 주체’로 인정하는 『교리교육지침』의 인간 이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PCPNE, 2020: nn. 224 - 225). CGS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Mt 18:3)라는 복음 말씀을 근간으로 삼으며, 유아를 존엄성과 신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접근하는 몬테소리의 관점을 계승하였다(Galeazzi, 1993: 1126). 이는 유아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발달 특성을 고려하며(Kim, & Kim, 2019: 140), 창조적 에너지와 종교적 잠재력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교리교육의 원리들을 설정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Montessori, 1957b: 295 - 305; Battista, 1989: 34 - 38).

CGS는 유아가 종교적 상징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사랑의 지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험을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몬테소리의 ‘종교적 민감기(religious sensitive period)’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Cavalletti, 1983: 10). 즉, 유아는 하느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과 더불어 기쁨·평화·보호에 대한 영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오직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Cho, 2001: 120). CGS는 유아 신앙교육이 유아의 ‘종교적 민감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할 때, 유아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앙 형성과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Cavalletti, 2005: 38-40). 이러한 관점은 CGS가 유아의 종교적 잠재력을 ‘겨자씨의 비유’(Mt 13:31-35)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신앙의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이를 조성하는 성인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배경이 된다(Cavalletti, 1996: 7).

이러한 CGS의 관점은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하는 인간 이해와 신앙교육의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리교육지침』은 유아가 하느님의 존재, 창조, 선과 악, 사랑과 삶의 신비와 같은 신학적 주제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종교적·감각·능력·직관’을 지닌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n. 236). 특히, 지침은 유아기를 첫 복음화와 신앙 선포의 탁월한 시간으로 규정하고(PCPNE, 2020: n. 239), 유아의 신앙 성장을 위해 부모와 교회 구성원들의 배려와 사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PCPNE, 2020: nn. 238-239). 이러한 내용은 CGS가 지닌 교리교육적 가치와 방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성경과 전례를 활용한 복음선포적(Kerygma) 교리교육

교리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선포하며,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PCPNE, 2020: n. 169). 이를 위해 교리교육은 인간 구원의 역사와 신비가 온전히 담겨있는 가톨릭교회의 원천인 ‘성경과 전례’를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자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PCPNE, 2020: nn. 90-96).

CGS는 하느님 계시의 원천인 성경과 전례를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고 인간과 소통하시는 계시의 장소”로 이해하며(Cavalletti, & Gobbi, 2009b: 69), 성경과 전례를 바탕으로 그리스도 중심 교리교육을 실현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CGS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성경과 전례의 주제로 구분되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개되며, 전례력을 따라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유아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경적 원천에 대한 접근에서는 주로 비유(parabola)를 활용한다. 이는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Cavalletti, & Gobbi, 2006: 96). 한편, 전례적 원천에서는 성체성사, 세례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대축일 전례 시기(성탄 대축일에서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부활 대축일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중심을 이루며, 특히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Catholic Church, 2008: n. 1324)인 성체성사는 CGS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동작, 물품, 언어, 이미지, 색상으로 드러나는 전례 표징은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CGS에서 다루는 주제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며,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깊이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Cavalletti, & Gobbi, 2007b: 5). 이는 CGS가 제시하는 교리교육이 단순한 암기적 방식이 아니라 삶의 구체성 안에서 내용을 내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가 신앙의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같은 방식은 모든 교리교육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거듭 선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첫 선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PCPNE, 2020: nn. 57-58).

CGS에 나타나는 네 가지 주제는 성경과 전례라는 두 원천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실질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착한 목자 비유(Jn 15:1 - 10)는 유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Laici, 2008: 51-53). 둘째, 미사를 통한 체험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체험하게 한다(Cavalletti, 2005: 75-78). 특히 CGS의 초기 단계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미사에 필요한 물품들의 명칭을 알고, 교회에서 실제로 보게 될 그 물품들과 연결 지음으로써, 그 상징이 지닌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돕는다(Cavalletti, & Gobbi, 2006: 17). 셋째, 세례성사는 유아의 삶에서 세례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대 교회의 전통에서 찾으며,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연결하여, 세례를 받은 이가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한다(Cavalletti, & Gobbi, 2006: 35-36). 이러한 세례의 의미는 부활초와 흰 예복, 성경, 물그릇과 조개껍질, 전례 행위 등과 같이 유아의 연령을 고려한 세례의 표징과 상징을 통해 전달된다. 넷째, 하느님 나라의 비유들(겨자씨(Mt 13:31-32), 누룩(Mt 13:33), 밀알(Mk 4:26-29), 숨겨진 보물(Mt 13:44), 진주를 발견한 상인(Mt 13:45-46))은 유아의 ‘놀라움의 능력’을 자극하여,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게 한다(Cavalletti, 2005: 143-150).

이러한 주제들은 고유한 특성과 분명한 교육적 의도를 지니면서도,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핵심을 전달한다. 이는 까발레띠가 강조한 케리그마적 성격으로 (Kim, 2020: 308), 교리교육이 단지 교의 전달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교리교육지침』(PCPNE, 2020: n. 170)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상징을 활용한 신비교육적 교리교육

『교리교육지침』은 신비 교리교육을 교리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교육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성경과 교회의 성스러운 전통 속에서 구원 역사로 해석하고, 신비교육적 방법인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직관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PCPNE, 2020: n. 98, n. 170). 이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전례의 표징들을 통해 신비의 의미를 설명하던 교리교육 방식이며(Lee, 2024: 140),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평생 양성과 같은 전례적·신학적 교육 과정으로(Kim, 2014: 70), 유아의 신앙 감수성 성장을 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Lee, 2024: 33).

『교리교육지침』의 이러한 시각은 몬테소리 종교교육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례용품, 의복, 공간, 색상 등 유아의 종교적 민감성을 자극하는 상징들이 신앙 감각을 직관적으로 내면화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Kim, 2020: 306). 이러한 종교교육적 접근은 몬테소리의 교육철학을 계승하여 전례와 말씀의 상징을 통한 신앙교육 방식을 체계화한 CGS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Cavalletti, & Gobbi, 2006: 13). 까발레띠는 방법과 내용 사이의 본질적 일치와 친화성을 강조하며, 유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언어로 ‘상징의 방법’을 제안했다(Cavalletti, 2005: 161). 상징을 활용하는 교회의 전통 교육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정체성을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언어라 할 수 있다(Sartore, 2001: 1854-1855).

그러므로 CGS는 전례의 상징과 성경의 비유를 핵심 교육 수단으로 삼는다. 전례 상징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배우는 유아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감지하게 하며, 특히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교육에 밀접하게 연결된다(Cavalletti, 2005: 164; Yang, 2019: 307). 유아는 전례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표징들 - 언어, 동작, 색, 사람, 물, 빛, 빵, 포도주 등 - 을 통해 단순한 기호(signifier)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비한 의미(mystical meaning)까지 접하게 된다(Cavalletti, 2005: 164, 172). 동시에 CGS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성경의 비유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교육 원칙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Cavalletti, & Gobbi, 2006: 89). 이는 CGS가 유아를 위해 착한 목자,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과 진주, 그물 등의 비유를 주제로 선정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GS의 접근은 유아 신앙교육이 유아의 신앙적 민감성과 직관력을 고려하며 (PCPNE, 2020: n. 239), 전례와 말씀의 상징이 교리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교리교육지침』에서 제시한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PCPNE, 2020: nn. 95-96, 170). 나아가 까발레띠는 전례를 통한 체험 교육이 신비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상징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리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Cavalletti, 2005: 168-172). 이러한 관점은 교리교사의 역할이 유아의 신앙적 동반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교리교육지침』 (PCPNE, 2020: n. 135)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4. 세 가지 간접 도움을 통한 체험 중심 교리교육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만 그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체험되지 못하는 신앙은 피상적이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며, 개인 삶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PCPNE, 2020: n. 56). 이러한 점에서 CGS는 유아가 교리의 주제를 내면화하도록 돕기 위해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단계는 교리교사가 해석이나 설명 없이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례 주제를 원문 그대로 전달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단계는 교리교사가 자신의 신앙 성찰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신앙적 질문을 던지며, 유아와 함께 본문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셋째 단계는 유아가 성경과 전례적 상징을 지닌 환경과 교재의 도움을 받아 혼자 머물며 개인적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이를 통해 신앙 체험을 점진적으로 내면화해 나간다. 예를 들어, 착한 목자 비유(Jn 15:1 - 10) 주제에서는 아트리움 공간에서 작은 양 모양의 상징물, 초, 착한 목자 성화 이미지, 미니어처 전례 용품 등을 활용하여 유아가 조용히 기도하거나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CGS가 제시하는 이러한 과정은 말씀, 관계, 활동, 전례 거행을 통해 신앙을 삶 안에서 체험하고 통합하도록 이끄는 교리교육 모델의 핵심 요소를 포함한다(Alberich, Choi, Baek, & Shin trans., 2018: 441). 특히, 유아가 신앙의 신비를 스스로 발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간접 도움의 요소인 교사, 교육 환경, 교구가 열린 구조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 가지 간접 도움의 요소는 각각의 특징을 필요로 한다. 첫째, 교사는 유아의 자율성과 내면의 성장을 동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몬테소리는 교사가 교육 환경을 정리하고, 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Kim, & Kim, 2019: 142; Holtstiege, & Park, 1997: 10). 이러한 관점은 교사의 역할이 유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가리킨다(Kim, 2015: 237-238; Yoon, 2008: 285-286). 이는 교리교사를 ‘동반 예술의 전문가’로 표현하며, 성령에 순응하며 대상자들의 신앙 여행을 돕

는 것이 교리교사의 역할임을 강조하는 『교리교육지침』의 방향과 일치한다(PCPNE, 2020: n. 113).

둘째, 교육 환경은 신앙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Cho, 2001: 122). 몬테소리는 ‘어린이 집’에 소규모 기도 공간을 마련하여 침묵과 명상의 분위기 속에서 유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Montessori, 1970: 14). CGS 역시 아트리움(Atrium)이라 불리는 공간을 구성하고(Cavalletti, 2005: 52), 빛과 색, 성경 인물 및 전례와 관련된 모형 등 감각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상징물을 배치함으로써 유아가 성찬례, 세례성사, 성경 본문 등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Yang, 2010: 469). 이러한 공간은 유아에게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CGS에서 강조하는 종교적 요소를 반영하는 기도 공간이 가정에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Gobbi, (n.d): 4-5). 이처럼 CGS의 환경 구성은 교리교육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지식을 일깨우고, 전례 거행의 이해와 체험을 도와야 한다는 『교리교육지침』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CPNE, 2020: nn. 74, 81). 다만, CGS가 제시하는 아트리움(Atrium)은 유아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한국 교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본당이나 가정에서도 기도 공간 마련과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되는 교리교육의 도구이다. CGS에서 교구는 유아의 ‘민감기’를 고려하여 신앙을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아가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면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돕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Gobbi, (n.d): 7-8). 이를 위해 CGS는 축소된 전례 용품이나 성경 이야기의 모형을 교구로 활용하며 유아들이 직접 조작하고 경험함으로써 신앙의 상징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hoi, & Kang, 2023: 447). 예를 들어, 포도나무와 가지들, 착한 목자와 양들과 같은 성경 속 상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가 신앙적 메시지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리교육이 윤리적 규범이나 추상적 이론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거룩함에 대한 체험을 통해 대상자의 마음과 정신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Francis, 2014: n. 165; PCPNE, 2020: nn. 175, 189-190). 그러므로 CGS의 교육 원리는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네 가지 교리교육의 기준(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 신비교육적 접근, 체험 중심의 교수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과 실천 방향

본 연구는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네 가지 교리교육 기준 - 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 신비교육적 접근, 체험 중심 교수법 -에 따라 서울대교구에서 개발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과 몬테소리 종교교육에 기반한 착한 목자 교리교육(CGS)의 접근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천주교회 주일학교 유아 신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과 착한 목자 교리교육(CGS)에 대한 분석은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하는 교리교육의 정체성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과 CGS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유아 교리교육에 대한 복음적 정체성의 확립이다. 『교리교육지침』은 교리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 선포의 수단으로 이해할 것을 요청하며, 교리교육의 단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전례주년을 중심으로 한 교재 구성과 성경 말씀의 활용에 대한 설명만 서술함으로써 내용, 방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반면, CGS는 내용, 방법, 교육 도구, 교육 공간, 교육자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에서 그리스도 중심성과 복음 선포적 의미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아 신앙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보편 교회가 강조하는 ‘새 복음화(New Evangelization)’의 맥락 안에서 복음화와 교리교육 간의 유기적 관계, 복음화 사명을 지닌 교리교육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리교육을 기획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아 신앙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교리교육을 인성교육의 한 형태로 오해하지 않도록(Na, 2012: 33), 교회는 유아 교리교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교재와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가톨릭 인간학적 관점에 따른 유아 이해의 정립이다. 『교리교육지침』은 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리교육이 제공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한국 천주교회는 유아를 여전히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이고 미완성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Shin, 2023: 644-646; Kim, & Ye, 2022: 52-53). 특히, 유아기 발달 특성과 존재론적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생략되거나 부차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신앙교육은 유아 신앙교육의 과정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 중심의 교리교육, 유아를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전례 그리고 영·유아기 교리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체계의 개편 지연은 유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한국 천주교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에서 나타난 성인 중심의 접근은 ‘유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CGS는 ‘유아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으로(Cavalletti, 2005: 23; Vigilante, 2011-2012:

67-68), 가톨릭 인간학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가 가톨릭 인간학적 관점에서 유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성찰을 하도록 초대하며, 이를 기초로 유아 신앙교육에 접근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교리교육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아들이 교리교육 안에서 온전히 존중받고, 신앙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확고한 신학적·교육학적 토대 위에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 신앙교육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선포적 교육’, ‘전례를 통한 신비교육’, ‘체험 중심 교수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유아 교리교육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과 전례의 상징을 통해 신앙을 내면화하도록 이끄는 교리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PCPNE, 2020: nn. 74, 95 - 96). 이러한 시각에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활동들이 교리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신앙의 신비를 드러내기보다는 단순 놀이로 인식되기 쉬운 구성으로 인해, 교리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심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CGS는 성경과 전례를 긴밀히 연계하여, 유아가 전례와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복음적 가치를 일상 안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성은 복음선포적 특징이 교재의 내용과 방법 모두에서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 교리교육은 단일한 교수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 전례적 상징을 활용한 신비교육, 감각 기반의 체험 중심 교수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수 전략 개발, 교사 연수, 자료 지원이 교구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유아 교리교육을 위한 환경 마련과 교구 개발의 필요성이다. 『교리교육지침』은 유아가 하느님의 신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체험을 통해 내면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교리교육이 전례와 상징,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PCPNE, 2020: nn. 95-96, 170). 이는 복음선포적이고 신비교육적인 교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교구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 실제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신앙교육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지침은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CGS는 전례적 상징과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아트리움(atrium)이라는 전용 공간 안에 배치하고, 유아가 직접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구를 통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교재 내용이 단지 문서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위한 전용 교리 교구의 개발과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 교리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교구에 대한 성찰은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교리교육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천주교회는 유아 신앙교육의 환경 조성과 교구 개발이 유아 교육기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간주하며 본당의 역할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본당이 교육 공간과 교구를 갖추는 데 있어 공간적·재정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당 내 유아 주일학교의 도입과 교구 차원의 제도

적·재정적 뒷받침은 유아 신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유아 신앙교육을 동반하는 성인 신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시급성이다. 『교리교육지침』은 교리교사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하느님과 그 신비를 체험하고 그 신비를 일상 안에서 증거하며, 대상자들을 하느님과의 친교로 이끄는 신앙의 동반자로 규정한다(PCPNE, 2020: n. 113). 교리교사의 이 정체성은 유아 교리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성인 교육자의 주도적 개입이 드러나며, 교육과정 또한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CGS는 교사를 유아의 자율성과 신앙 성장을 돕는 ‘간접적 동반자’로 이해하며, 이는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하는 교리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부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아 교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통합적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침서가 제시하는 인간적이고 신앙적 성숙을 지향하는 존재론적 차원,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신학적·교육학적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이끄는 지식적 차원, 신앙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차원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하는 교리교사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당 주일학교는 유아 교리교육을 도입하기 전에, 전문적인 유아 교리교사를 양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CGS는 각 교구의 교리교육 부서와 협력하여 3년의 양성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공식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CGS 교리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리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천주교회도 유아 교리교육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교구, 본당 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유아 신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유아 신앙교육은 본당, 교육기관, 가정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리교육지침』은 유아 신앙교육에서 가정, 교회(본당), 교육기관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세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아 신앙교육을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 우선, 본당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전례와 성사 체험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기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장이 되며, 가정은 일상의 삶 안에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통합하는 ‘작은 교회’의 기능을 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가정 중심의 교리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 제시되는 활동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환경과 인적 자원이 확보된 유아 교육기관에서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교재의 활용 범위와 장소에 따른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CGS는 교구와 CGS 협회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교구의 제도적 뒷받침과 부모·교사 대상의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CGS가 본당이나 교육기관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교육 원리를 가정·본당·교육기관에 적용함으로써 유아 신앙교육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교육을 위해, 본당·교육기관·가정은 교육자의 태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교육 공동체적 연대는 유아 신앙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교리교육지침』이 제시한 현대 교리교육의 네 가지 기준, 즉 대상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 신비교육적 접근, 체험 중심의 교수법을 이론적 기틀로 삼아, 서울대교구에서 개발한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을 분석하고 이 교재가 지닌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유아 신앙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한 착한 목자 교리교육(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에서 드러나는 유아 교리교육의 원리와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탐색하였다.

우선,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은 유아를 전인적 존재로 인식하고, 전례주년과 성경 말씀을 유아 신앙교육의 핵심 원천으로 삼으며,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교리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교리교육지침』에서 제시하는 교리교육의 방향과 일치를 이루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활동이 복음화의 대상이자 신학적 주체로 이해된 유아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 성인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교육을 위해 성경과 전례에 집중하기 보다 유아의 흥미와 발달 특성에 집중한 활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몬테소리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CGS는 유아를 단순한 지식 전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신학적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교육 철학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유아의 ‘종교적 민감기’를 고려하여 전례와 성경의 상징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 방식과 교사·환경·교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신앙 체험 및 내면화의 구체적 설계는 유아의 신앙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유아 신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목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CGS는 교회가 새롭게 제시한 『교리교육지침』의 교육적 방향성과도 부합하며,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이 지닌 성인 중심 교수법, 전례 참여의 한계, 본당 교육 중심의 구조적 제약 등의 한국 천주교회의 유아 신앙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적·제도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교구의 유아 교리교육 교안집의 한계는 단순히 교재와 교수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당 중심 교리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의 전반적인 한계, 유아 교리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회 내 유아에 대한 인식 부족, 유아 전문 교리교사 양성

부족, 행정적·제도적 지원 미비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 유아 교리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한 CGS 방법론 또한 아트리움 공간 마련, 교리교육 도구 제작, 유아 전문 교리교사 양성 등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CGS를 한국의 교리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당, 교육기관, 가정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한국 천주교회가 지닌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교구에서 발간한 『살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을 분석하여 한국 천주교회 유아 신앙교육의 현황을 탐색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특정 교구의 교재에 제한되었으며, 대안으로 제시한 CGS 방법론의 활용에 대한 실질적 체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교재 활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연구는 다양한 교구의 교리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교육 사례를 통해 CGS의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교리교육지침』이 강조하는 디지털 문화(n. 43)와 현대 예술 작품(n. 47)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리교육 접근법을 다루는 데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유아를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나 현대 예술 작품을 활용하는 교리교육적 접근은 현대 사회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주제로써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bbreviations]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 CGS

Pontificio Consiglio per la Promozione della Nuova Evangelizzazione : PCPNE

Mt : Matthew

Mk : Mark

Jn : John

[Primary Sources]

Cavalletti, S. (2005). Il potenziale religioso del bambino. Descrizione di un'esperienza con bambini da 3 a 6 anni. Roma: Città Nuova. (Translated in English) *The religious potential of the child: Description of an experience with children aged 3 to 6*. Rome:

- Città Nuova.
- Cavalletti, S., & Gobbi, G. (2006). Io sono il Buon Pastore: guida per il catechista. I anno. Todi: Tau. (Translated in English) *I am the Good Shepherd: Guide for the catechist. Year I*. Todi: Tau.
- Cavalletti, S., & Gobbi, G. (2007b). Io sono il Buon Pastore: guida per il catechista. III anno. Todi: Tau. (Translated in English) *I am the Good Shepherd: Guide for the catechist. Year III*. Todi: Tau.
- Cavalletti, S., & Gobbi, G. (2009a). Io sono il Buon Pastore: guida per il catechista. IV anno. Todi: Tau. (Translated in English) *I am the Good Shepherd: Guide for the catechist. Year IV*. Todi: Tau.
- Cavalletti, S., & Gobbi, G. (2009b). Io sono il Buon Pastore: guida per il catechista. V anno. Todi: Tau. (Translated in English) *I am the Good Shepherd: Guide for the catechist. Year V*. Todi: Tau.
- Gobbi, G. (n.d.). Alcuni principi montessoriani applicati alla catechesi dei bambini. Roma: Associazione “M. Montessori” per la formazione religiosa del bambino. (Translated in English) *Some Montessori Principles Applied to the Catechesis of Children*. Rome: “M. Montessori” Association for the Religious Formation of the Child.
- Montessori, M. (1957b). Il segreto dell'infanzia. Milano: Garzanti. (Translated in English) *The secret of childhood*. Milan: Garzanti.
- Montessori, M. (1970). I bambini viventi nella Chiesa. Milano: Garzanti. (Translated in English) *The child in the Church*. Milan: Garzanti.
- 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the New Evangelization. (2020). *Directory for Catechesis*. Cinisello Balsamo: San Paolo Edizioni.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2011). 샬롬, 우리 예수님. 서울: 서울대교구. (Translated in English) Seoul Archdiocesan Youth Ministry, Preschool Department. (2011). *Shalom, Our Jesus*. Seoul: Seoul Archdiocese.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2019a).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 1. 서울: 서울대교구. (Translated in English) Seoul Archdiocesan Youth Ministry, Preschool Department. (2019a). *Shalom: Catholic Preschool Catechism Guidebook Vol. 1*. Seoul: Seoul Archdiocese.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2019b).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 2. 서울: 서울대교구. (Translated in English) Seoul Archdiocesan Youth Ministry, Preschool Department. (2019b). *Shalom: Catholic Preschool Catechism Guidebook Vol. 2*. Seoul: Seoul

Archdiocese.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2021). *샬롬, 가톨릭 유아 교리 교안집 3*. 서울: 서울대교구. (Translated in English) Seoul Archdiocesan Youth Ministry, Preschool Department. (2021). *Shalom: Catholic Preschool Catechism Guidebook Vol. 3*. Seoul: Seoul Archdiocese.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5). *The Holy Bible*. Seoul: Catholic Conference of Korea.

[Secondary Sources]

- Alberich, E. *La catechesi oggi: Manuale di catechetica fondamentale*. 최주영, 백광현, 신현문 옮김 (2018). *오늘의 교리교육: 교리교육학개론*.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 Battista G. (1989). *L'educazione religiosa in Maria Montessori*, Milano: Massimo. (Translated in English) *Religious Education in Maria Montessori*. Milan: Massimo.
- Catechesi del Buon Pastore. (n. d.). Catechesi del Buon Pastore. Retrieved 2025. 02. 20., from <https://sites.google.com/view/catechesi-del-buon-pastore/home>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0. 04. 27.).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19. Retrieved 2025. 02. 20., from <https://cbck.or.kr/Board/K7200/20190456?page=2>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1. 04. 13.).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0. Retrieved 2025. 02. 20., from <https://cbck.or.kr/Board/K7200/20210245?page=1>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2. 04. 26.).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1. Retrieved 2025. 02. 20., from <https://cbck.or.kr/Board/K7200/20220327?page=1>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3. 04. 25.).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2. Retrieved 2025. 02. 20., from <https://cbck.or.kr/Board/K7200>
-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4. 04. 24.).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3. Retrieved 2025. 02. 20., from <https://cbck.or.kr/Board/K7200>
- Catholic Church. (2008).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Seoul: CBCK.
- Cavalletti, S. (1983). The richness of early religious experience. *Vita dell'infanzia*, 32(1), 10 -

11.

- Cavalletti, S. (1996). The religious formation of the child: Montessori experiences around the world. *Vita dell'infanzia*, 45(9), 11-12.
- Chang, H. S. (2010). Theory and Application of Christian Children's Education in the Church on the Basis of Reformed Theology of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Review*, 24, 93-122.
- Cho, S. J. (2001). The Meaning of Spirituality in Montessori's Educational Though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Holistic Educational Ideal.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5(2), 119-131.
- Choi, E. J., & Kang, G. S. (2023).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erspective on the Child in Montessori's. The Secret of Childhood.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3(6), 435-456.
- Galeazzi, G. (1993). Person, Education, and Peace in Jacques Maritain and Maria Montessori. *Orientamenti pedagogici*, 40(6), 1117-1131.
- Holtstiege, H., & Park, S. E. (1997). The Role of the Montessori Teacher at Home and in Childcare Centers in Montessori Pedagogy. *Practi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1(0), 99-110.
- Jung, S. C. (2003). "Experience" in Catechesis. *WORLD AND WORD*, 13, 128-156.
- 정신철 (2023). 교리교육문헌 해설.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Jung, S. C. (2023). *Commentary on catechetical documents*. Incheon: Incheon Catholic University Press.
- Kang, M. H. (1997). A Piagetian Perspective on Child Care Program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 31-59.
- Kim, D. S., & Kim, K. Y. (2019). A Study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Kindergarten Teacher about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9, 137-170.
- Kim, H. J. (2014). Key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Mystagogical Catechesis. *WORLD AND WORD*, 36, 75-127.
- Kim, J. Y., & Ye, C. H. (202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cognition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Children, the Implementation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Teacher - Child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8, 41-55.
- Kim, K. Y. (2022).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Identity of Korean Catholic Schools.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61, 137-185.

- Kim, S. I. (2014). The Liturgical Education of Children: From Directorium de Missis cum Pueris. *WORLD AND WORD*, 36, 7-61.
- Kim, S. I. (2015). Study on Liturgical Education Method in M. Montessori's Religious Education. *WORLD AND WORD*, 38, 225-255.
- Kim, S. W. (2020).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ith Recognized by Young Children. *Christian Education Review*, 63, 283-315.
- Korea Catholic Culture Research Institute (2024. 8. 8.). 영유아기 교육 세미나 자료집. Retrieved 2025. 04. 20., from <https://.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com/2-1.htm>
- Laici, C. (2008). La parola ai bambini e ai ragazzi. Città di Castello (PG): Morlacchi. (Translated in English) *Giving the Wor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Città di Castello (PG): Morlacchi.
- Lee, E. K. (2014). Death and Its Education as Themes of Religious Education for Children. *Theological Forum*, 75, 281-306.
- Lee, G. E. (2014). *A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That Develops Spiritual Potential Based on Sophia Cavalletti's Understanding of Religious Spirituality: Focusing on The Religious Potential of the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 Lee, G. H. (2010). *Catechesis for Youth through Dialogue and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Catholic University.
- Lee, J. O. (2024). Faith Formation for Infants and Toddlers through Sunday School and the Family to Foster "Good Christians and Honest Citizens": According to Article 65 of the Korean Catholic Youth Pastoral Guidelines. *Pastoral Information*, 17(6), 32-35.
- Lee, Y. J. (2024). Mystagogy on the 'Renunciation of Sin' and 'Profession of Faith': Focusing on Cyril of Jerusalem's Mystagogiae. *The Catholic Theology*, 44, 139-179.
- Na, O. J. (2012). *The Current State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Archdiocese of Seoul and the Diocese of Uijeongbu*.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Pope Benedict XVI. (2010). 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사명. 바티칸: 교황청. (Translated in English) *Verbum Domini: The Word of the Lord - The Church's Mission Regarding the Word of God*.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 Pope Francis. (2014). 복음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Evangelii Gaudium: The Joy of the Gospel* (2013. 11. 14.). Seoul: CBCK.
- Pope John Paul II. (1986).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echesi Tradendae: On Catechesis in Our Time* (1979. 10. 16.). Seoul: CBCK.

- Sala, R., & Lee, J. O. (2022). Evangelization and Educational Accompaniment: Youth Ministry and Catechesis through the Lens of the New Directory for Catechesis (2020). *Journal of Catholic Youth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2, 263-279.
- Sartore, D. (2001). Segno/Simbolo. In Sartore, D., Triacca, A. M., & Cibien, C. (Eds.), *Liturgia*. Milano: San Paolo. (Translated in English) *Sign/Symbol*. In Sartore, D., Triacca, A. M., & Cibien, C. (Eds.), *Liturgy*. Milan: San Paolo.
- Shin, D. B. (2020).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Korean Catho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Focusing on Maria Montessori's Educational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Catholic University.
- Shin, H. H. (2023). A Study on a Relational-Reflective Approach to Intergenerational Christian Education: A Focus on Children's Participation. *Theology and Praxis*, 84, 643-673.
- Vigilante, M. (2011 - 2012). The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Catechesi*, 81(6), 67-77.
- Yang, K. H. (2010).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Spirituality and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in "Children's Spirituality" Researc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38, 457-480.
- Yang, K. H.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ild Baptism Educ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1(3), 283-312.
- Yoon, S. R. (2008). The Theory of Montessori and the Direction of Child Education. *Yugwansun Research*, 13, 271-295.